

사회

목포 주택 불 일가족 4명 사망 '애끓는 모정'

부러진 허리 끌고 60m 기어 갔건만...

창문서 뛰어내려 중상... 아이 구하려 현관까지 갔다 혼절

부러진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매캐한 연기 탓에 숨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연기에 질식돼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세자녀를 생각하며, 감싼 발걸음은 온몸으로 기어갔다. 눈물의 모정(母情)에게 기고 또 기어오른 60m는 너무도 멀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7일 새벽 4명이 숨진 목포 주택 화재사건 피해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30대 어머니는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자녀와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60m를 기어갔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안에서 잠긴 현관문을 끝내 열리지 않았고, 가족들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목포시 상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은 이날 새벽 0시30분경. 2층 안방서 잠을 자던 김모(여·38)씨는 매캐한 연기 내음에 이내 몸을 일으켰다. 숨막히는 열기에 화재를 직감한 김씨는 곧바로 옆에서 자던 작은 딸(7)을 깨웠다. 하지만 작은 딸은 기척이 없었다.

남편은 외출 중이었다. 김씨는 안방의 방문을 열어 작은 방과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 권모(67)씨와 큰딸(8), 막내아들(2)을 불렀지만 집안은 이미 불길에 휘감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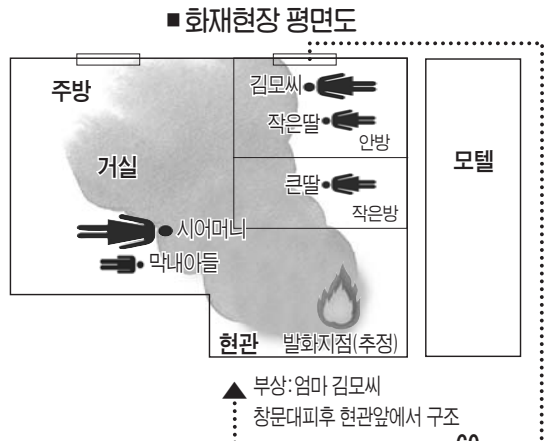
10여m 반대편에 있는 현관까지 가려했지만 불길과 연기가 그녀를 막아섰다. 다시 안방으로 눈을 돌린 그녀는 2층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족을 생각에 어둠 속을 기어서 2층 현관으로 향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60m를 겨우 돌아 2층 현관 앞 계단에 올라섰지만 불길에 닿은 현관문은 잠겨있었고 뜨거운 손을 데지도 못했다. 김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잠시 뒤 혼절한 채 누워있던 그녀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불은 바로 옆 한 모텔 투숙객의 신고로 진화작업이 전개됐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소방서 대원들은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시어머니 권씨는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작은 딸과 큰 딸은 발견 당시 혼수상태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숨을 거뒀다.

불은 2층 주택 129㎡ 가운데 6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주택은 2층 구조로 1층은 노래주점이었지만 전날이 현충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화재 원인이 방화나 전기합선 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자녀와 시어머니는 창문이 닫혀 있는데다 출입구가 막힌 상황에서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채 한밤 중 60m의 밤



▲ 부상·염마 김모씨. 청문대피후 현관앞에서 구조. 길은 기어갔던 어머니 김씨는 7일 밤 현재 목포 한국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소수 생존자 시어머니를 애달게 부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7일 새벽 0시30분경 불이나 주택이 전소된 목포시 상동 장모(44)씨 2층집 현관에 불에 검게 탄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화재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수산단 가스 누출 49명 중독

한국실리콘 공장 탱크로리 밸브 파손

7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실리콘(주)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작업 근로자 40여명이 가스에 중독됐다. 그러나 회사측이 작업자 대피 지시 등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수경찰과 한국실리콘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경 여수시 화치동 한국실리콘 제2공장에서 3류 위험물질로 분류된 트리클로로실란(TCS)

액체 500kg이 누출되기 시작해 오후 3시30분까지 1시간30여분 간 작업근로자 등 49명이 독성 가스에 노출됐다.

이날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박모(27)씨의 눈에 독성 액체가 묻는 중상을 입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박모(27)씨는 가스를 피해 탱크 위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주변에 있던 작업자 41명도 액체에서

나오는 악취를 마셔 구토와 두통, 목 따가움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사고가 트리클로로실란을 실은 탱크로리가 최근 증설을 마치고 시험운전 중인 공장 내 고정식 탱크에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로리 밸브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편 이날 사고 직후 회사

측이 외부에 비상대피령 등 경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후 회사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축전지 원료와 반도체 중간물질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2공장을 증설했다. 여수공장은 1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트리클로로실란=반도체 부품의 소재인 규소를 만들기 위한 중간 원료. 무색의 액체로 눈이나 피부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흡입 시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러움 등을 동반한다.

또 '블랙아웃'?

7일 광주의 낮 기온이 최고 30.9도로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접어든 가운데 예비전력이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만kW대로 떨어졌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께 전국 예비전력이 316

발령했고 한전은 1시35분께 수용가에게 문자를 발송, 전력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전력은 전압 하향조정 조치를 통해 70만kW 정도의 수요관리를 했다. 예비전력이 300~400만kW로 떨어지면 전압조정 1단계를 통해 1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7일 예비전력 300만kW대 '비상'

한전, 수용가에 사용자제 문자

400만kW 아래로 내려가면 전력당 400만kW(예비율 4.9%)까지 내려갔다. 이날 최대 공급능력은 6682kW, 피크타임 순간 최대 전력수요는 6366만kW에 달했다. 이날 광주의 피크타임(정오) 전력 사용량은 415만7000kW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광주 지역 피크타임 최고 사용량은 419만2000kW, 피크타임 평균은 386만9000kW였다. 지경부는 곧바로 '관심단계'를

예비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내려가면 전력당 400만kW(예비율 4.9%)까지 내려갔다. 이날 최대 공급능력은 6682kW, 피크타임 순간 최대 전력수요는 6366만kW에 달했다. 이날 광주의 피크타임(정오) 전력 사용량은 415만7000kW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광주 지역 피크타임 최고 사용량은 419만2000kW, 피크타임 평균은 386만9000kW였다. 지경부는 곧바로 '관심단계'를

검 '의문의 상품권' 광주시청 압수수색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당시 의문의 26억원 어치 상품권 구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비서실, 총무과 등 관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광주시 비서실, 총무과 등에 보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광주시 각 실·국·과 압무추진비 법인카드 관련 서류와 일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구입했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권은 '깡'을 통해 현금화된 뒤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광주 모 백화점은 지난해 4월 광주시, 광주시청 직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판매대금 5억82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폭 총학생회장

10년간 순천 2개대 장악 학생회비·교비 수익 횡령

대학 총학생회를 대물림하면서 수익원의 학생회비와 교비를 도박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조폭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폭 중에는 모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들어가 총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직접 총학생회장도 있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순천 모대학 등 2개 대학 총학생회장을 대물림하면서 학생

회비 4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순천 중앙과 조폭폭력배 정모(40)씨 등 1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박모(31)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순천 모대학 등 2개의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한 뒤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후, 후배 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대물림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 등 대학 행사비로 지급되는 학생회비, 교비 등 수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이체해 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나원침 (8583) 김종두



'실직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아내 경찰 자수

7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안모(여·44)씨 아내 남편 A(45)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실직한 남편이 함께 술을 마시며 '같이 죽자'고 말해 영겁결에 남편 목을 넥타이로 졸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티켓다방 성매매 알선업주 등 쇠고랑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남 지역 다방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7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장흥·구례지역 다방업주 고모(30)씨 등 2명은 종업원 송모(여·22)씨 등 13명을 고용한 뒤 티켓 영업을 권유해, 모두 10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조사 결과 공씨 등은 불특정 남성들에게 한 차례에 20만원씩 성매매를 알선해 받은 화대 2000만원의 절반인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소기업청 2012년 신사업 창업(업종전환)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지원원

창의적이고 참신한 창업 및 업종전환 아이디어 발굴·보급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기회 제공

꿈과 열정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성공 지름길!



1. 신사업 유망 창업(업종전환) 아이디어 공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을 통해 지역업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업종간 과당경쟁 해소와 소자본 창업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추구

- 신청대상 : 신사업 유망 창업(업종전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자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이 있는 자
■ 발굴분야 : 외식(음식), 도소매, 서비스, 그린/친환경/하우징, 웰빙(건강)/실버, 온라인(IT), 기타(특세)
■ 발굴내용
○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최근 소개되어 시장규모가 작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신사업 유망 창업(업종전환) 아이디어
○ 기존시장의 변형, 서비스 업종의 융합 등 새로운 수익시장 창출이 가능한 창업(업종전환) 아이디어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성별·연령 등에 구애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 신청기간 : 6월 8일(금) ~ 10월 23일(화), 18:00 까지
* 매일 23일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해 당일 평가·선정하며, 23일 이후 접수분은 익월 평가·선정
■ 수당지급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견에 한하여 발급금 지급
■ 기타사항
○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시장성, 수익성, 성장가능성 등이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에 의한 심화분석 실시
○ 최종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책자제작,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에 활용

2.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의 유망 아이디어를 평가·선정하여 전문가 코칭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우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업종간 과당경쟁 해소

- 신청대상 :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신청일 기준로서, 사업화지원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한 자
** 업종전환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업재신청일 기준로서 사업화 지원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창업업종전환이 가능한 자
- 폐업사실 증명(세무서 발행) 확인을 통해 폐업사실 여부 및 기존 영위 업종 등 확인
■ 신청기간 : 6월 8일(금) ~ 6월 23일(토) 18:00 까지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 업종전환 및 창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선정하여 우수 계획에 대해 전문가 코칭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사업화 지원 : 개발된 비즈니스모델 중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선정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항목 : 견본제작, 마케팅, 매장 모델링, 전문가 자문료 등
■ 지원규모
○ 비즈니스모델 개발 : 비즈니스모델 개발 소요비용 지원(건당 300만원)
○ 사업화 지원 : 업체당 최대 2,500만원 지원
* 전체 사업비의 50%(2,500만원) 이상을 본인부담

3.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원 지식서비스부 042-363-7611~2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원 홈페이지(www.seda.or.kr) 또는 신사업 아이디어 홈페이지(www.newbiz.or.kr)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사업 유망 창업(업종전환) 아이디어 공모 : idea@seda.or.kr
○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bm@seda.or.kr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은 개별통보